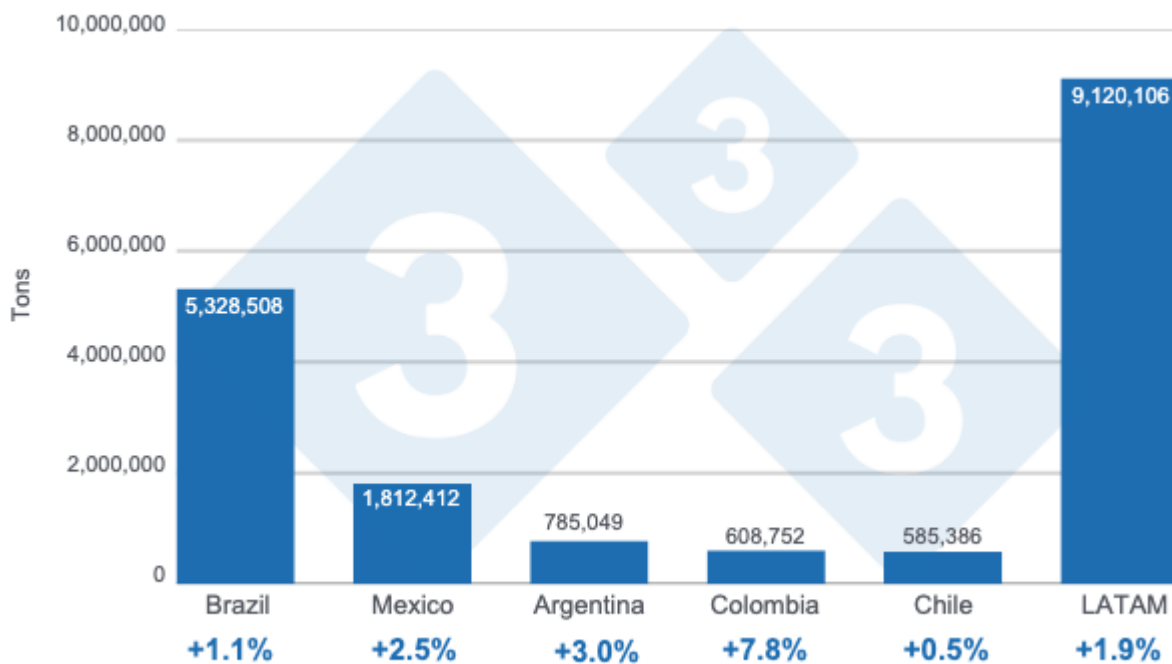


2024년 라틴 아메리카 돼지 사육 실적 분석 및 2025년 전망

Carlos Andrés Castro
2025년 5월 9일 (5일 전)

2024년 전체 산업 성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전체 생산량의 거의 95%를 차지하는 이 지역 5대 주요 국가의 주요 변수 결과와 주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들 국가의 생산량은 910만 톤(Mt)으로, 2023년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LATAM is the sum of the leading Latin American pig farming countries: Brazil, Mexico, Argentina, Colombia, and Chile.

브라질의 돼지고기 수출은 사상 최고치(130만 톤)를 기록하며 거의 10%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제 돼지고기 수요 공급에 있어 브라질의 높은 경쟁력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 증가는 돼지고기 생산량이 1.1% 소폭 증가하여 2024년 530만 톤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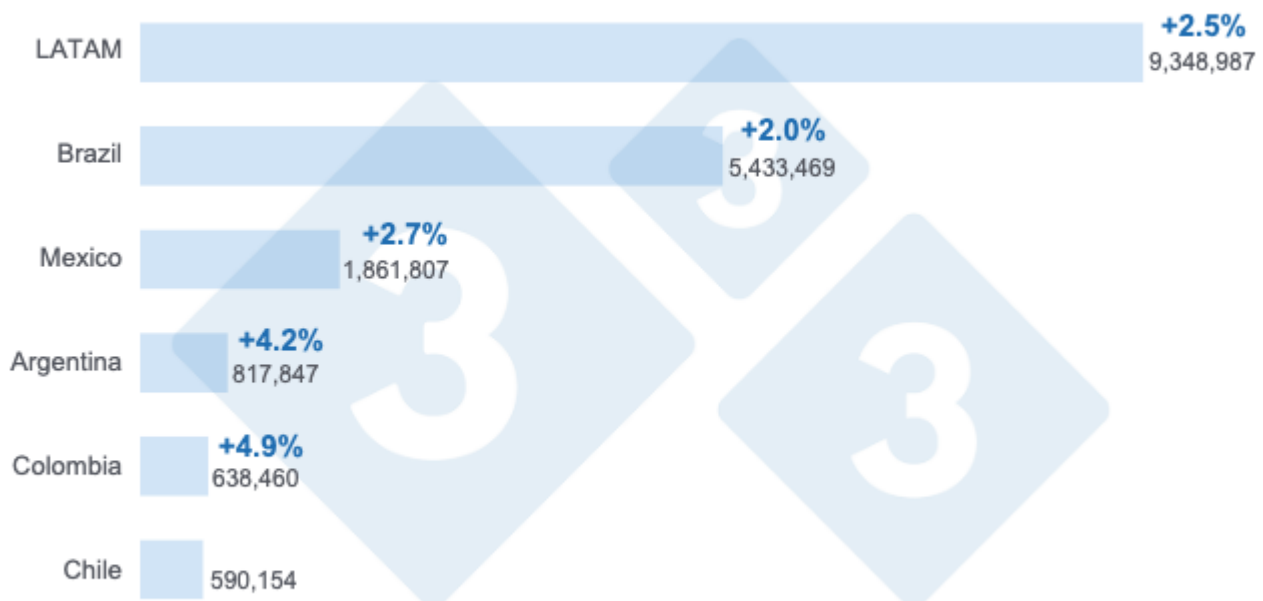
멕시코의 국내 생산량은 2.5% 증가한 180만 톤에 달했지만, 주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수입량은 다시 사상 최고치(173만 톤)를 기록하며 국내 돼지고기 소비량의 약 52%를 차지했습니다. 수출량은 12% 감소한 188,629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수출 가격 상승이 물량 감소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국내 소비가 돼지고기 생산 증가의 주요 원동력이었으며, 생산량은 2023년 대비 3% 증가한 785,049톤에 달했습니다. 거시경제적 어려움과 총 22,674톤에 달하는 수입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량은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는 지난해 30.2% 성장한 수출의 점진적인 회복에 힘입은 바가 큼니다.

콜롬비아는 연간 7.8%의 증가율과 608,752톤이라는 사상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며 이 지역의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이로써 콜롬비아는 중남미 돼지고기 생산국 순위에서 칠레를 제치고 4위로 도약했습니다. 콜롬비아의 양돈 산업 전망은 매우 낙관적이며,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칠레의 국내 돼지고기 소비량은 돼지고기 생산량이 0.5% 소폭 증가하고 수입량이 18.1%나 크게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수출량이 2.1% 감소한 것은 국내 수요 충족에 주력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국내 수요는 2022년 이후 처음으로 44만 8천 톤을 넘어섰습니다.

2025년에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LATAM is the sum of the leading Latin American pig farming countries: Brazil, Mexico, Argentina, Colombia, and Chile.

지역 차원에서는 돼지고기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93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돼지고기 관세 부과는 국제 무역 흐름과 국내 생산 수준을 재편할 수 있는 큰 충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로운 시장 상황에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브라질은 제품 경쟁력과 더불어 89개국 이상이 브라질을 수입 돼지고기 공급국으로 승인함에 따라 돼지고기 수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미국과 여러 전통적 교역국 간의 현재 "관세 전쟁"은 멕시코, 중국 등 여러 국가에 돼지고기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추산에 따르면, 돼지고기 생산량은 연중 국내외 수요 증가에 힘입어 54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멕시코는 주요 수입 돼지고기 공급국인 미국의 관세 부과와 멕시코 정부의 보복 조치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미국과의 수출입이 중

단되는 품목을 부분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무역 파트너를 다각화하는 것입니다. 또는 수입 대체 계획을 시행하여 국내 돼지고기 생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의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장기적으로만 나타날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멕시코의 돼지고기 국내 수요가 매우 강하고 국내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 또는 국내 생산을 통해 충족해야 할 큰 시장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전망에 따르면 2025년 멕시코의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은 약 170만 톤이 될 것입니다. 국내 소비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국내 소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약 180만 톤의 해외 수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거시경제 환경과 국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부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함에 따라 양돈 산업 전망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약 82만 톤으로 추산되며 수출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다른 단백질 대비 경쟁력을 갖춘 아르헨티나 국내 돼지고기 소비량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입량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양돈 산업은 앞으로도 매우 좋은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 증가에 힘입어 시장 점유율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25년에는 생산량이 약 64만 톤으로 다시 한번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칠레**의 경우 2024년 대비 0.8% 증가한 59만 톤의 생산량을 예상합니다. 돼지 사육은 새로운 환경 규정 채택으로 인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로 인해 규정 준수를 위한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생산량 증가도 제한될 것입니다.

결론

2024년은 라틴 아메리카 돼지고기 생산에 매우 긍정적인 한 해였습니다. 돼지고기에 대한 높은 수요는 국내 소비에 힘입어 지속되었고, 상당한 양의 수입이 가능했지만, 국내 생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라틴 아메리카 돼지고기의 세계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었는데, 이는 우리 돼지고기 수출의 경쟁력을 분명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측면에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우리 산업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면서도 성장을 지속할 것입니다. 지정학적 환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위기는 직간접적으로 새로운 기회로 이어진다고 확신하며, 이러한 무역 흐름의 재편 가능성은 새로운 무역 파트너와의 수요 및 공급 관계를 더욱 다각화하고 나아가 국내 생산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